

제 1 교시

국어 영역(B형)

[1~3] 다음은 토의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요즘 우리 시의 관광 산업이 위축돼서 지역 경제가 침체될 것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 관광 산업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시청 관광진흥과 정○○ 과장님, 한국 대학교 관광학과 김△△ 교수님을 모시고 토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정 과장님께서 지역 관광 산업의 실태를 말씀해 주시지요.

정 과장: 우리 시는 문화유산을 많이 간직하고 있고 자연 경관이 빼어나서 관광지로서 매력적이지만 관광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를 찾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볼거리나 즐길 거리에서 수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사회자: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김 교수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 교수: 말씀을 들어 보니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끌 만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저는 우리 시의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이 답이라고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지역에 [A] 서는 17세기에 만들어진 서원을 전통문화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요, 문을 연 지 두 달 만에 수천 명이 다녀갔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인기가 높아서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정 과장님, 김 교수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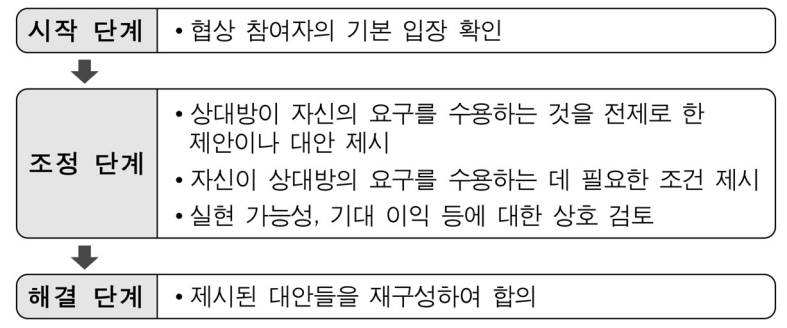
정 과장: 지역에 있는 향교와 고택들을 개방하고 이를 묶어 이야기가 있는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유주 및 거주인과 고택 개방에 대해 협상을 벌여야 합니다.

사회자: 그렇군요. 여기서 잠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을 제안하실 방청객께서는 손을 들어 주세요. (방청객을 확인한다.) 제일 앞줄에 계신 분 말씀해 주세요.

고택 주인: 정 과장님 말씀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방안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저처럼 중가 고택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고택이 생활공간이기도 하고 조상님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이걸 개방하면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건물이 훼손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요?
(하략)

- [A]의 흐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문제 관련 현황 제시 → 대안 비교 분석 → 최선의 해결책 선택
 - 문제 관련 현황 제시 → 문제 해결 방안 제시 → 구체적 실행 방안 제시
 - 문제 발생 원인 분석 → 대안 비교 분석 → 구체적 실행 방안 제시
 - 문제 발생 원인 분석 → 문제 해결 방안 제시 → 방안의 장단점 비교
 - 문제 해결 방안 제시 → 대안 비교 분석 → 최선의 해결책 선택
- 위 토의에 참여한 이들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사회자는 발언자가 말한 의도를 재차 확인하는 질문을 하였다.
 - 사회자는 발언자들의 발언 내용을 요약하며 토의를 진행 하였다.
 - ‘정 과장’은 제공한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는 구체적 수치를 활용하였다.
 - ‘김 교수’는 발언의 요지를 제시한 후 사례를 들어 뒷받침 하였다.
 - ‘고택 주인’은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는 설의적인 질문을 하였다.
-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의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 활동] ‘정 과장’과 ‘고택 주인’이 고택 개방을 쟁점으로 아래의 절차에 따라 협상을 한다고 할 때, 조정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해 보자.



정 과장	○ ‘고택 주인’에게 고택 훼손 방지를 위한 관리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①
	○ ‘고택 주인’에게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②
	○ ‘고택 주인’에게 고택 개방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데 공감해 줄 것을 요구한다. ③
고택 주인	○ ‘정 과장’이 고택 개방을 전제로 제시한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다. ④
	○ ‘정 과장’의 제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고택 개방 방법을 요구한다. ⑤

[4~5] 다음은 친구 간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소연: 영화 어땠니?
 창완: 주인공이 한복 디자이너로 나왔잖아. 한복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정말 좋았어. 한복이 진짜 멋지더라.
 소연: 그래, ㉠ 정말 멋지던데.
 창완: 또 있어. 이 영화가 가족 관계의 회복을 다루고 있잖아. 그게 참 마음에 와 닿았어.
 소연: ㉡ 나도 그렇게 느꼈는데,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었어?
 창완: 부자간에 갈등이 깊었지만, 결국엔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는 과정이 참 인상적이었어. 근데…….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쉰다.)
 소연: ㉢ 괜찮아, 말해 봐.
 창완: 실은, 영화를 보면서 아버지랑 내가 자주 떠오르더라고.
 소연: 그래? ㉣ 혹시 너도 아버지랑 갈등이 있었던 거야?
 창완: 사실, 어제 아버지께 옷차림이 불량하다고 엄청 혼났거든. 난 평범하게 입었던 거 같은데……. 평소에는 큰소리를 잘 안 내시는데 어젠 심하게 혼내시더라고. 그래서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오늘까지 기분이 좋지 않았어.
 소연: ㉤ 너 정말 맘이 불편하겠구나.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창완: 아버지께서 꾸중하신 건 내가 혹시라도 단정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 걱정하셔서 그러셨을 텐데…….
 소연: 그럼 고민만 하지 말고 아버지께 네 맘을 표현해 봐.
 창완: 난 말재주가 없는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지?

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의 발언 내용 중 일부를 반복하여 동조의 뜻을 표현하고 있다.
- ② ㉡: 상대의 표현 방식에 대한 자신의 평가가 옳은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고 있다.
- ③ ㉢: 상대가 말을 중단한 점에 주목하여 상대가 말을 계속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 ④ ㉣: 대화 맥락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 ⑤ ㉤: 상대의 감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5. 대화 내용과 <보기>를 참고할 때, 창완의 마지막 말에 대한 소연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대인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는 어떤 의사소통 방식이 갈등을 유발했는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때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것이 좋다.

- ① “아버지께서 우리 세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시대가 달라졌다는 걸 인정해 주실 수는 없나요?”라고 말씀드려 봐.
- ② “제가 불손하게 행동해서 놀라셨죠? 아버지께서 제 취향을 몰라주신 게 화가 나서 그랬어요.”라고 말씀드려 봐.
- ③ “제가 건방지게 굴어서 당황하셨죠? 아버지께서 심하게 혼내셔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라고 말씀드려 봐.
- ④ “아버지께서 평소에 자주 소리치고 화를 내셔서 아버지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아무 말도 안 한 건 죄송해요.”라고 말씀드려 봐.
- ⑤ “제가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속상하셨죠?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하신 말씀인데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해요.”라고 말씀드려 봐.

[6~7] 다음은 ‘청소년의 소비 태도’에 대한 논설문을 교지에 실기 위해 학생이 작성한 개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주제문: 청소년 소비의 문제점 ㉠

I. 서론 ㉡

II. 본론

- 1. 현황 분석
 - 가. 청소년의 금융 지식 부족의 원인 ㉢
 - 나. 또래 집단이 선호하는 유명 상표의 상품 동조 구매다. 상품 광고의 영향을 받은 충동구매
- 2. 문제 원인 분석
 - 가. 상품 가치에 기대어 자신을 인정받으려는 심리 ㉣
 - 나. 또래 집단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심리다. 상품 광고에 대한 무분별한 수용 태도
- 3. 문제 해결 방안
 - 가. 내적 가치의 발견을 통한 자아 존중감 확립
 - 나.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 ㉤
 - 다. 상품 광고에 대한 비판적 수용 능력 함양

III. 결론: 청소년의 소비 태도 개선 촉구 및 제언

6. 글을 작성하기 전 개요를 수정·보완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글의 유형과 내용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그릇된 소비 태도를 개선해야 한다.’로 바꾼다.
- ② ㉡은 ‘III’의 제시 방법을 고려하여 ‘I. 서론: 청소년의 소비 태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으로 바꾼다.
- ③ ㉢은 상위 항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 ④ ㉣은 ‘II-3-가’의 내용을 고려하여 ‘자기 가치관을 드러내려는 심리’로 수정한다.
- ⑤ ㉤은 ‘II-2-나’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또래 집단 내의 바람직한 관계 맺기에 대한 인식 제고’로 내용을 보완한다.

7.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개요의 'II-3-다'에 해당하는 글을 작성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자료 1: 전문가 의견>

청소년에게는 또래 집단이나 타인에 대한 동조와 모방 심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자신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청소년들은 상품의 기능이나 경제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유명 연예인이 광고하는 상품을 구매하려 한다.

<자료 2: 학급 설문 조사>

(가) 상품을 구매할 때 광고의 영향을 받는가?

응답	비율
예	72%
아니오	28%

(나) 상품 선택에 영향을 주는 광고의 요인은?

순위	광고의 요인
1	유명 연예인
2	유명 상표
3	상품의 기능

- ① 청소년의 충동구매로 빚어지는 소비 문제는 참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진실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 ② 자신의 경제력을 넘어서는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청소년의 비합리적 소비 문제는 광고를 통해 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 ③ 유명 연예인이 자주 출연한 광고가 상품 이미지를 청소년에게 강요하는 문제는 청소년이 그런 광고의 비효율성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 ④ 모바일 기기 보급에 따라 광고에 대한 접근과 유명 상표의 상품 구매가 쉬워짐으로써 발생하는 청소년 소비 문제는 청소년들의 정보 기기 활용 능력 배양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 ⑤ 유명 연예인을 모방하기 위해 상품을 구입하는 청소년의 소비 문제는 광고 속 상품의 이미지에 현혹되지 않고 주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상품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다.

8. 다음은 답사 보고서의 일부이다. <보기>에서 계획한 내용 중 <답사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보 기>

'보고서의 목적과 의의'에는 어떤 내용을 담을까?

- ㉠ 답사 참여자의 선정 과정을 밝혀 답사의 취지를 드러내자.
- ㉡ 답사 대상의 가치를 언급하며 보고서의 의의를 밝히자.
- ㉢ 답사 목적과 함께 답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자.
- ㉣ 답사 대상을 언급하며 사전 조사한 내용을 제시하자.
- ㉤ 최근 기사를 활용하여 답사 동기를 제시하자.

<답사 보고서>

*제 목: 아우라지 베개 용암을 다녀와서
 *작성일: 0000년 00월 00일
 *작성자: △△고등학교 지리 답사반

1. 보고서의 목적과 의의

얼마 전 00신문에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아우라지 베개 용암이 천연기념물 542호로 지정되었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를 접한 많은 친구들이 베개 용암이라는 재미있는 이름에 대해, 그리고 어떤 가치를 인정받은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 했다. 그래서 우리 동아리에서는 베개 용암을 직접 답사하고 그곳의 특이한 지형을 담은 사진과 함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학교 친구들에게 알려 주기로 했다. 베개 용암은 용암이 물과 접촉할 때 급속하게 냉각되는 과정에서 베개 모양의 형태로 굳은 용암을 일컫는다. 사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베개 용암은 해저 산맥에서 용암이 분출할 때 잘 발달하는 것이어서 아우라지 베개 용암은 우리나라 육지에서는 발견된 예가 드문 것이라고 한다. 베개 용암의 형성 과정, 구성 성분 등과 같은 지질학적 가치에 대한 설명을 담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우리 고장의 천연기념물의 소중함을 알려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기억력'에 대한 글을 써 보자.

과제의 초고

“저 친구 이름이 뭐였더라?”, “이거 전에 배웠던 건데 왜 생각이 안 나지?”, …… 바쁘게 일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생각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다. 모든 것들 다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지만, 밤새 공부했던 내용이 시험 칠 때 생각나지 않는다거나, 여러 날 고생해서 만든 과제를 깜빡 잊고 그냥 학교에 갔을 때는 짜증이 나고 속이 상하기 마련이다.

㉠ 그러므로 기억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기억 전문가들은 기억력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초 동안 대상을 응시하는 습관을 ㉡ 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기억할 대상을 20초 동안 집중해서 기억한 다음, 눈을 감고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 하는데, 이때 기억한 내용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다시 20초 동안 집중해서 바라본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습관을 들이면 ㉢ 행동을 하던, 학습을 하던 그 내용이 2~3배는 더 강력하게 ㉣ 저장되어진다고 한다.

㉤ 물론 이러한 습관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기억은 기억을 보유하는 시간과 안정성의 정도에 따라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서 제시한 방법이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이유는 단기 기억을 20초 이상 유지할 때, 입력된 정보가 비교적 안정된 장기 기억으로 남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9. '과제의 초고'에서 글쓴이가 활용한 글쓰기 방법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문제 상황을 친숙한 대상에 비유하며 글을 시작한다.
 ㄴ. 화제와 관련된 일상적인 사례를 들며 글을 시작한다.
 ㄷ.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설명하고 있다.
 ㄹ. 대상의 모습이 잘 드러나도록 공간적인 순서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ㄴ, ㄷ, ㄹ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문장의 접속 관계를 고려하여 '그렇다면'으로 고쳐 쓴다.
 ② ㉡은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들여야 한다'로 고쳐 쓴다.
 ③ ㉢은 어미의 사용이 잘못되었으므로 '행동을 하든, 학습을 하든'으로 고쳐 쓴다.
 ④ ㉣은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었으므로 '저장된다고'로 고친다.
 ⑤ ㉤은 글의 흐름과 어긋나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11. <보기>를 고려하여 모음의 발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 기>

모음의 표준 발음

- 국어의 단모음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의 10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ㅛ, ㅠ'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는데, 특히 'ㅛ'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면 [꺄]와 같아진다.
- '예, 례' 이외의 '꺄'는 [꺄]로 발음할 수 있다.
-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ㄱ'는 항상 [ㄱ]로 발음되되,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 '의'는 [꺄]로 발음할 수 있다.

- ① '개'와 '꺄'를 동일하게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② '꺄꺄'를 [꺄꺄]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지꺄'를 [지꺄]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비꺄다'와 '비치다'를 모두 [비치다]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⑤ '충의의 뜻'에서 '충의의'를 [충이에]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12.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와 같이 문장을 수정하였다. <보기 2>의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고른 것은?

<보기 1>

정확한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형성하는 규칙인 문법을 잘 지켜야 한다. ㉠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 등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있는 경우, ㉡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등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 조사나 어미를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문법성이 결여되어 바르지 않은 문장이 된다.

<보기 2>

원래의 문장 ⇒ 수정한 문장	고려한 사항
○ 이 장면은 연출된 것이니 반드시 따라 하지 마세요. ⇒ 이 장면은 연출된 것이니 절대로 따라 하지 마세요.	(가)
○ 우리는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 ⇒ 우리는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타인이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	(나)

- | | |
|-----|-----|
| (가) | (나) |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13. 다음의 탐구 과정에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께) “<u>아니오</u>, 모르겠습니다.” • (친구에게) “<u>아니</u>, 몰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주인공이 <u>아니오</u>.”
----	---	---

의문점 '아니오'의 '오'와 '아니오'의 '오'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문제 탐구	자료에서 '아니오'의 쓰임을 확인한다. ㉠ 뒷사람이 묻는 말에 부정으로 대답할 때 쓰이는데, '아니'에 '오'가 붙어서 된 말이다.	자료에서 '아니오'의 쓰임을 확인한다. ㉠ 보어층 취하는 서술어로 쓰이는데, '아니'에 '-오'가 붙어서 된 말이다.
	자료와 다음 사례를 통해 '오'의 문법적 특성을 알아본다. • 뭘 할까요? 뭘 할까? • 어서요, 빨리요. ㉠ 단어, 어찌 어찌 등에 붙어 높임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인데, '오'가 빠지더라도 문장이 성립한다.	자료와 다음 사례를 통해 '-오'의 문법적 특성을 알아본다. • 얼마나 기쁘오? 얼마나 기쁘니? • 일단 멈추시오.

적용 “그러면 안 되□.”의 □ 안에는 '오'가 들어간다.

- ① 어간에 붙는다.
- ② 선어말 어미에 붙는다.
- ③ 평서문에는 쓰이지 않는다.
- ④ '-오'가 빠지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⑤ 상대방을 보통으로 높이는 종결 어미이다.

14.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 기 >

높임법은 화자가 높이려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으로 구분된다. 주체 높임법은 주어 가 나타내는 대상인 주체를 높이는 것이며, 상대 높임법은 대화의 상대인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고,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 것이다.

동생: 학교 다녀왔습니다.
 누나: ㉠ 이제 오는구나.
 동생: 누나밖에 없어? ㉡ 아버지 안 계신 거야?
 누나: 응. 너 저녁 안 먹었지? ㉢ 아버지께 전화 드리고 얼른 나가자.
 동생: 무슨 일인데?
 누나: ㉣ 아버지께서 너 데리고 식당으로 오라셨어. ㉣ 할머니 모시고 저녁 먹으러 가자고 그러시더라.

- ① ㉠은 '-는구나'를 사용하여 상대인 동생을 높이고 있다.
- ② ㉡은 '계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③ ㉢은 '께'를 사용하여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④ ㉣은 '께서'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⑤ ㉣은 '모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15.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바라다¹ [바라, 바라니] ㉠【…을】

- ㉠【-기를】 어떤 일이나 상태가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다.
 ㉠ 여행을 바라다 /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라다.
- ㉡ 원하는 사물을 얻거나 가졌으면 하고 생각하다.
 ㉡ 돈을 바라고 너를 도운 게 아니다.

바래다¹ [바:--] (바래어(바래), 바래니) ㉢

- ㉢ 별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하다.
 ㉢ 빛 바랜 편지 / 색이 바래다
- ㉣【…을】 별에 찌거나 약물을 써서 빛깔을 희게 하다.
 ㉣ 이불을 별에 바래다

- ① 바라다¹과 바래다¹은 모두 다의어이다.
- ② 바라다¹과 바래다¹㉢은 주어 이외에도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한다.
- ③ 바라다¹에 의하면, “나는 너의 성공을 바래.”의 '바래'는 '바라'의 잘못이다.
- ④ 바래다¹의 첫 음절은 장음으로 발음된다.
- ⑤ 바래다¹㉣의 용례로 '종이가 누렇게 바래다'를 추가할 수 있다.

16. <보기>의 ㉠과 ㉡에 속하는 사례를 바르게 제시한 것은?

< 보 기 >

모음 '·'는 중세 국어 이후 크게 두 단계의 변화를 겪었다. 제1 단계 변화에서는 ㉠ 단어의 둘째 음절 이하에 놓인 모음 '·'가 'ㅡ'로 변화하였다. 이 변화가 일어나고 난 뒤 제2 단계 변화에서는 ㉡ 첫째 음절에 놓인 모음 '·'가 'ㅏ'로 변화하였다. 단어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예외가 보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 두 단계의 변화를 겪어 '·'는 모음 체계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 | | | |
|---|---------|---------|
| | ㉠ | ㉡ |
| ① | 마늘 > 마늘 | 흙 > 흙 |
| ② | 사슴 > 사슴 | 꺾장 > 가장 |
| ③ | 흐나 > 하나 | 오늘 > 오늘 |
| ④ | 사름 > 사람 | 드리 > 다리 |
| ⑤ | 아들 > 아들 | 다섯 > 다섯 |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흔히 어떤 대상이 반드시 가져야만 하고 그것을 다른 대상과 구분해 주는 속성을 ㉠ 본질이라고 한다. X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X에 대한 필요 충분한 속성을 찾으려 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X에 대해 그리고 오직 X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을 찾으려 한다. ㉡ 예컨대 모든 까투리가 그리고 오직 까투리만이 평이면서 동시에 암컷이므로, ‘암컷인 평’은 까투리의 본질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암컷인 평은 애초부터 까투리의 정의라고 우리가 규정한 것이므로 그것을 본질이라고 말하기에는 허망하다. 다시 말해서 본질은 따로 존재하여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까투리라는 낱말을 만들면서 사후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서로 다른 개체를 동일한 종류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의사소통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체들이 공유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본질주의는 ㉢ 그것이 우리와 무관하게 개체 내에 본질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 반면에 반(反)본질주의는 그런 본질이란 없으며, 인간이 정한 언어 약정이 본질주의에서 말하는 본질의 역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이러나 본질은 우리가 관습적으로 부여하는 의미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본질’이 존재론적 개념이라면 거기에 언어적으로 상관하는 것은 ‘정의’이다. 그런데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약정적이지 않으면서 완벽하고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는 사실은 반본질주의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준다. 사람을 예로 들어 보자. 이성적 동물은 사람에 대한 정의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면 이성적이지 않은 갓난아이를 사람의 본질에 반례로 제시할 수 있다. 이번에는 ㉦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정의를 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를 이루고 산다고 해서 모두 사람인 것은 아니다. ㉧ 개미나 벌도 사회를 이루고 살지만 사람은 아니다.

서양의 철학사는 본질을 찾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질주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유나 지식 등의 본질을 찾는 시도를 계속해 왔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직까지 본질적인 것을 명확히 찾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숨겨진 본질을 밝히려는 철학적 탐구는 실제로는 부질없는 일이라고 반본질주의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우리가 본질을 명확히 찾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의 무지 때문이 아니라 그런 본질이 있다는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물의 본질이라는 것은 단지 인간의 가치가 투영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반본질주의의 주장이다.

17. ‘반본질주의’의 견해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어떤 대상이라도 그 개념을 언어로 약정할 수 없다.
- ② 개체의 본질은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개체에 내재하고 있다.
- ③ 어떤 대상이든지 다른 대상과 구분되는 불변의 고유성이 있다.
- ④ 어떤 대상에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그 대상은 다른 대상과 구분된다.
- ⑤ 같은 종류에 속하는 개체들이 공유하는 속성은 객관적으로 실재한다.

18. 문맥상 ㉠과 ㉡의 관계와 같은 것은?

	㉠	㉡
①	가위는 자를 수 있는 도구이다	칼
②	노인은 65세 이상인 사람이다	64세인 사람
③	이모는 어머니의 여자 형제이다	어머니의 여동생
④	고래는 헤엄칠 수 있는 포유동물이다	헤엄칠 수 없는 고래
⑤	연필은 흑연을 나무로 둘러싼 필기 도구이다	흑연 심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금은 오랫동안 색깔이나 밀도처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특성으로 정의되어 왔지만 이제는 현대 화학에 입각해 정의되고 있다.

(나) 누군가가 사자와 바위와 컴퓨터를 묶어 ‘사바컴’으로 정의했지만 그 정의는 널리 쓰이지 않았다.

- ① 본질주의자는 (가)를 숨겨져 있는 정확하고 엄격한 본질을 찾아 가는 과정으로 해석하겠네.
- ② 본질주의자는 (나)를 근거로 들어 본질은 사후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네.
- ③ 반본질주의자는 (가)에서처럼 널리 믿어지던 정의가 바뀌는 것을 보고 약정적이지 않은 정의는 없다고 주장하겠네.
- ④ 반본질주의자는 (나)에 대해 그 세 가지가 지니는 근원적 속성이 발견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겠네.
- ⑤ 본질주의자와 반본질주의자는 모두 (가)를 들어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개체들을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겠네.

20. 글의 특성과 문맥을 고려할 때, ㉠~㉤를 활용한 독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념의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므로 핵심어인 ㉠이 글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확인해야겠어.
- ② 글에서 다루는 내용이 추상적이므로 ㉡에 이어진 사례를 통해 앞의 설명에서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야겠어.
- ③ 내용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 지시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겠어.
- ④ 상반된 두 입장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로 이어진 앞뒤의 내용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 살펴봐야겠어.
- ⑤ 사실과 글쓴이의 의견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를 통해 강조되는 글쓴이의 주장이 타당한지 따져 보아야겠어.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화가 발전하려면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란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비영리적인 사적 복제를 허용하는 것이 그 예이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서는 오래전부터 공정 이용으로 볼 수 있는 저작권 제한 규정을 두었다.

그런데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의 공정 이용은 여러 장애에 부딪혔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저작물을 원본과 동일하게 복제할 수 있고 용이하게 개작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물이 개작되더라도 그것이 원래 창작물인지 이차적 저작물인지 알기 어렵다. 그 결과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공정 이용의 범주에 드는 것인지 가늠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그에 따른 처벌 위험도 커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이 저작권법에 별도로 신설되었다. 그리하여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이 확장되었다. 그러나 공정 이용 여부에 대한 시비가 자율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예나 지금이나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저작물 이용의 영리성과 비영리성, 목적과 종류, 비중, 시장 가치 등이 법적인 판단의 기준이 된다.

저작물 이용자들이 처벌에 대한 불안감을 여전히 느낀다는 점에서 저작물의 자유 이용 허락 제도와 같은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캠페인은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에 일정한 이용 허락 조건을 표시해서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누구의 저작물이든 개별적인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달리, 이 캠페인을 펼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저작권자와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양과 범위를 확대하려고 노력한다. 이들은 저작물의 공유가 확산되면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그 결과 인터넷이 더욱 창의적이고 풍성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캠페인에 참여한 저작물을 이용할 때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한편 ㉠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이 확산되면 저작물을 창조하려는 사람들의 동기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활용 가능한 저작물이 줄어들게 되어 이용자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 디지털 환경에서는 사용료 지불 절차 등이 간단해져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없었다고 본다. 이들은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과 신설된 공정 이용 규정으로 인해 저작권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21.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저작자의 권리 보호는 문화 발전의 한 축을 이룬다.
- ② 디지털 환경 이전에도 공정 이용과 관련된 규정이 있었다.
- ③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도 저작물의 공정 이용은 성립할 수 있다.
- ④ 공정 이용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도 저작권이 인정된다.
- ⑤ 저작물이 모두의 소유라는 주장은 저작물 공유 캠페인의 핵심이다.

22. ㉠의 주장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이용 허락 조건을 저작물에 표시하면 창작 활동을 더욱 활성화한다.
- ②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이 확산되어야 한다.
- ③ 비영리적인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복제가 허용되는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 ④ 저작권자가 자신들의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수록 창작 의욕이 더 커진다.
- ⑤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양보하는 것은 다른 저작권자의 저작권 개방을 유도하여 공익을 확장시킨다.

23.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료 1】

다음은 저작물 공유 캠페인의 ‘자유 이용 허락’ 조건 표시의 한 예이다.

- ㉠: 출처를 표시하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함.
- ㉡: 출처를 표시하고 사용하되 상업적 사용은 안 됨.

【자료 2】

A는 자신의 미술 평론에 항상 ㉠ 표시를 하여 블로그에 올렸다. B는 표시의 조건을 지키며 A의 미술 평론을 이용해 왔다. 최근 A는 조카의 돌잔치 동영상을 만들고 ㉡ 표시를 하여 블로그에 올렸다. 그런데 B는 그 동영상에서 자신의 저작물인 예술 사진이 동의 없이 사용된 것을 발견하였다. B는 A에게 예술 사진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하였다.

- ① A는 ‘자유 이용 허락’ 조건 표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에 참여하는 사람이겠군.
- ② B가 평소 A의 자료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 A는 B에게 사용료 지불을 요구할 수 없겠군.
- ③ A의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면, A는 B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겠군.
- ④ B는 공정 이용 규정이 없었다면, A에게 사용료 지불을 요구할 수 없겠군.
- ⑤ B가 A의 미술 평론의 일부를 편집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면, A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었겠군.

[28~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람의 눈이 원래 하나였다면 세계를 입체적으로 지각할 수 있었을까? 입체 지각은 대상까지의 거리를 인식하여 세계를 3차원으로 파악하는 과정을 말한다. 입체 지각은 눈으로 들어 오는 시각 정보로부터 다양한 단서를 얻어 이루어지는데 이를 양안 단서와 단안 단서로 구분할 수 있다. 양안 단서는 양쪽 눈이 함께 작용하여 얻어지는 것으로, 양쪽 눈에서 보내오는, 시차(視差)*가 있는 유사한 상이 대표적이다. 단안 단서는 한쪽 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은 단안 단서만으로도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추론에 의하여 세계를 3차원으로 인식할 수 있다. 망막에 맺히는 상은 2차원이지만 그 상들 사이의 깊이의 차이를 인식하게 해 주는 다양한 실마리들을 통해 입체 지각이 이루어진다.

동일한 물체가 크기가 다르게 시야에 들어오면 우리는 더 큰 시각(視角)*을 가진 쪽이 더 가까이 있다고 인식한다. 이렇게 물체의 상대적 크기는 대표적인 단안 단서이다. 또 다른 단안 단서로는 ‘직선 원근’이 있다. 우리는 앞으로 뻗은 길이나 레일이 만들어 내는 평행선의 폭이 좁은 쪽이 넓은 쪽보다 멀리 있다고 인식한다. 또 하나의 단안 단서인 ‘결 기울기’는 같은 대상이 집단적으로 어떤 면에 분포할 때, 시야에 동시에 나타나는 대상들의 연속적인 크기 변화로 얻어진다. 예를 들면 들판에 만발한 꽃을 보면 앞쪽은 꽃이 크고 뒤로 가면서 서서히 꽃이 작아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시각적 단서가 쉽게 원근감을 일으킨다.

어떤 경우에는 운동으로부터 단안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운동 시차’는 관찰자가 운동할 때 정지한 물체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지가 물체들까지의 상대적 거리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차를 타고 가다 창밖을 보면 가까이 있는 나무는 빨리 지나가고 멀리 있는 산은 거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동물들도 단안 단서를 활용하여 입체 지각을 할 수 있다. 특히 머리의 좌우 측면에 눈이 있는 동물들은 양쪽 눈의 시야가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양안 단서를 활용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 단안 단서는 입체 지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가령 어떤 새들은 머리를 좌우로 움직였을 때 정지된 물체가 움직여 보이는 정도에 따라 물체까지의 거리를 파악한다.

* 시차: 하나의 물체를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보았을 때 방향의 차이.
* 시각: 물체의 양쪽 끝으로부터 눈에 이르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

28. 윗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두 눈을 가진 동물 중에 단안 단서로만 입체 지각을 하는 동물이 있다.
- ② 사람이 원래 눈이 하나더라도 경험을 통해 세계를 입체로 지각할 수 있다.
- ③ 사람의 경우에 양쪽 눈의 망막에 맺히는 상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다.
- ④ 직선 원근을 이용해 입체 지각을 하려면 두 눈에서 보내오는 상을 조합해야 한다.
- ⑤ 새가 단안 단서를 얻으려고 머리를 움직이는 것은 달리는 기차에서 창밖을 보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가) 다람쥐가 잠자는 여우를 발견하자 여우를 보면서 자신과 여우를 연결하는 선에 대하여 직각 방향으로 움직였다.
(나) 축구공이 빠르게 작아지는 동영상을 보여 줄 때는 가만히 있던 강아지가 축구공이 빠르게 커지는 동영상을 보여 주자 놀라서 도망갔다.

- ① (가)에서 다람쥐가 한 행동이 입체 지각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다람쥐는 운동 시차를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② (가)에서 다람쥐가 머리의 좌우 측면에 눈이 있는 동물이라면 양안 단서를 얻기 위해 행동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③ (가)에서 다람쥐로부터 여우가 멀리 있을수록 다람쥐에게는 여우가 빠르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겠군.
- ④ (나)는 결 기울기가 강아지에게 입체 지각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군.
- ⑤ (나)에서 강아지의 한쪽 눈을 가렸다면 강아지는 놀라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겠군.

30. (가), (나)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독서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성현의 경전을 읽고 자기를 돌이켜 보아서 환히 이해되지 않는 곳이 있거든, 모름지기 성인이 준 가르침이란 반드시 사람이 알 수 있고 행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하여 말한 것임을 생각하라. 성현의 말과 나의 소견이 다르다면 이것은 내가 힘쓴 노력이 철저하지 못한 까닭이다. 성현이 어찌 알기 어렵고 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를 속이겠는가. 성현의 말을 더욱 믿어서 딴 생각이 없이 간절히 찾으면 장차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

- 이황, 「독서」 -

(나) 『사기』의 「자객열전」을 읽다가 “조(祖)를 마치고 길에 올랐다.”라는 구절을 보게 되었다고 하자. “조(祖)가 무엇인가요?”라고 물으면 스승께서는 “떠나보낼 때 건강을 기원하는 제사다.”라고 하실 것이다. 다시 “하필 그것을 ‘할아버지 조(祖)’로 쓰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요?” 하면, “그것은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실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사전(字典)*을 꺼내 ‘조(祖)’의 본뜻을 알아보아라. 그리고 사전을 바탕으로 다른 책으로 나아가 그 책의 주석과 풀이를 살피면서 그 뿌리의 끝을 캐고 가지와 잎까지 줍도록 하여라.

- 정약용, 「둘째 아들에게 부침」 -

* 사전 : 한자를 모아서 일정한 순서로 늘어놓고 글자 하나하나의 음과 뜻을 풀이한 책.

- ① 책의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려는 자세로 읽는다.
- ② 책을 읽다가 의문이 생기면 자신의 소견으로 성현의 말씀을 헤아리며 읽는다.
- ③ 책을 읽다가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며 읽는다.
- ④ 책을 읽다가 낯선 단어가 나오면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며 읽는다.
- ⑤ 책을 읽다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 비판의 근거로 삼을 만한 책을 찾아 읽는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땀덥까. [A]

㉠ 이애 이애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앞밭에는 당추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어,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둥글둥글 수박 식기(食器) 밥 담기도 어렵더라.
 도리도리 도리소반(小盤) 수저 놓기 더 어렵더라.

㉡ 오 리(五里) 물을 길어다가 십 리(十里) 방아 짘어다가,
 아홉 솔에 불을 때고 열두 방에 자리 걸고,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버니같이 어려우랴.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 시아버니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새 하나 할림새요 시누 하나 뽕죽새요
 시아지비 뽕중새요 남편 하나 미련새요
 자식 하난 우는 새요 나 하나만 썩는 썰새.

㉣ 귀먹어서 삼 년이요 눈 어두워 삼 년이요
 말 못해서 삼 년이요 석 삼 년을 살고 나니,
 ㉤ 배꽃 같던 요내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삼단 같던 요내 머리 비사리춤이 다 되었네.
 백옥 같던 요내 손길 오리발이 다 되었네.
 열새 무명 반물치마 눈물 씻기 다 젖었네.
 두 폭 불이 행주치마 콧물 받기 다 젖었네.
 울었던가 말았던가 베갯머리 소(沼) 이뤘네.
 그것도 소이라고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
 쌍쌍이 때 들어오네.

- 작자 미상, 「시집살이 노래」 -

31. 윗글의 시상 전개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탄과 반성의 어조를 교차하여 복잡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상황을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나서 다양한 예들을 나열하고 있다.
- ③ 처음과 끝을 동일한 내용으로 상응시켜 시상 전개에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④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확대해 가면서 심리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외부 세계와 내면을 대비해 가며 이상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3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물음에 대한 답변을 유보하며 사촌 동생의 결혼을 만류하고 있다.
- ② ㉡: 과장된 표현을 통해 며느리가 수행해야 하는 가사 노동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③ ㉢: 시집 식구들을 일일이 지목하여 시집 식구들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며느리가 감당해야 하는 제약을 제시해 며느리의 처지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 결혼 전후의 용모 변화를 자연물에 빗대어 시집살이의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33. [A]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하구나.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다 저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지는가.
 어와, 너로구나. 이내 사설 들어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입이 사랑함직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다 여기시매
 나도 입을 믿어 딴 생각 전혀 없어
 아양이며 교태며 어지럽게 하였던지
 반기시는 낮빛이 예와 어찌 다르신가.

- 정철, 「속미인곡」 -

- ① [A]와 <보기> 모두 시어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 ② [A]와 <보기> 모두 화자 자신의 문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제삼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 ③ [A]와 <보기> 모두 예전에 알고 지내던 인물과의 만남을 계기로 하여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계절의 변화를, <보기>에서는 공간의 변화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⑤ [A]에서는 반어적 표현을, <보기>에서는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옹이 엿드려 불효한 죄를 청하니 부인이 대경(大驚) 왈,
 “우리 모자는 죄인이라 마음이 늘 숲에 앉은 새 같거늘, 네 나가서 무슨 죄를 짓기라도 한 것이냐?”
 하니, 웅이 두려워하여 일어나 위로 왈,
 “어찌 남에게 죄를 지었겠나이까? 모자지간에 불효막심한 일이 있삽나이다.”
 하고, 강호에 다다라 장 소저를 취한 곡절을 아뢰니 부인이 대희(大喜) 왈,
 “죄 지은 자는 살지 못한다는 말이 옳구나. 본디 겁먹은 마음에 무슨 죄라도 지었는지 미리 겁을 먹고 놀랐구나.”
 하고 다시 물어 왈,
 “장 소저를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네 말을 들으니 진정 네 짝이로다. 그 또한 하늘이 시키심이니 어찌 인력으로 취하였으리오? 그러나 우리 형세가 이러하니 어찌 예절을 기다리겠느냐? 죄 될 것이 없으니 조금도 두려워 마라.”
 하며 다시 그 동안의 일과 장 소저 가문을 물으니 웅이 일일이 아뢰니, 부인과 제승(諸僧)이 다 듣고 기이히 여겨 칭하(稱賀) 왈,
 “하늘이 인도하심이라, 어찌 기특지 아니하리오?”
 월경 대사 왈,
 “부인은 소송이 전에 드린 말씀은 이제야 증험한 줄을 아시나이까?”
 부인이 칭찬 왈,
 “우매한 소견으로 어찌 대사의 신기함을 알겠나이까?”
 하고 대사에게 항복함을 마지아니하더라.

이때 대사가 웅을 데리고 신통한 술법을 의논하더니 이러구러 삼 년이 되었는지라.
 일일은 웅이 부인에게 여쭙되,
 “소자 처음에 이리로 올 적에 선생께 기약을 정하고 왔사오니, 이제 슬하를 잠깐 떠나 선생께서 실망하시는 탄식이 없게 하겠나이다.”
 하니, 부인이 새로이 슬퍼 왈,
 “여러 해 그리던 마음을 다 펴지 못하고 또 가려 하니, 네 말은 당연하나 정리(情理)에 절박하고 또 사람의 일을 알지 못하니 네 회환(回還)이 더딜진대 네 거처를 어디 가서 찾으리오?”
 월경 대사 왈,
 “부인은 추호도 염려치 마소서. 공자의 거처는 소송이 알고 있나이다.”
 부인이 이미 대사의 신기함을 아는지라, 부인 왈,
 “만일 대사가 아니면 객지에서 어찌 우리 모자가 서로 의지하리오?”
 하고 웅에게 왈,
 “부디 네 선생을 보고 속히 돌아오라.”
 당부하니, 웅이 하직하고 말을 달려 수일 만에 관산에 이르니 이전에 보던 산천이 모두 반기는 듯하더라.

[중략 줄거리] 조옹은 이후 군대의 원수가 되어 황위를 찬탈한 이 두병 세력과 전쟁을 벌이며 아버지의 원한을 갚고 황실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원수가 창으로 찌며 삼대의 우편으로 달려들며 접전하니 삼대는 항상 왼손으로 칼을 날리며 좌편으로 달려들거늘 원수가 계속 피하여 우편을 범하니, 이날 팔십여 합에 승부를 정하지 못하고 각각 본진으로 돌아오니라. 삼대가 크게 의심 왈,

“조옹이 필연 무슨 아는 일이 있는가 싶으니 괴이하도다.”

하고 행여 천기를 누설할까 두려워하더라. 원수가 본진으로 돌아와 강백더러 왈,

“삼대는 용맹이 실로 범상한 장수가 아니라, 쉽사리 잡지 못할 것이니 내일은 강장이 먼저 나아가 싸우라. 내 기세를 타 함께 싸우리라.”

또 이르되,

“삼대의 좌편을 범치 말고 부디 경적(輕敵)*지 말라.”

하더라.

이튿날 삼대가 창을 들고 말을 내달아 크게 외치며 왈,

“오늘은 맹세코 네 머리를 베어 분함을 씻으리라.”

하고 진전(陣前)에 횡행하거늘 강백이 또 창을 들고 진전에 나서며 크게 외쳐 왈,

“무지한 삼대는 들어라. 네 두 형의 혼백이 우리 진중에 갇히어 나가지 못하고 주야로 울며 애통하되 ‘소장의 동생 삼대의 머리를 마저 바치울 것이니 가공한 혼백을 놓아 주옵소서.’ 하며 주야로 가공한 소리 진중에 낭자하거늘 네 아무리 살리고자 한들 어찌 살리리오?”

[B] 달려들어 바로 삼대의 우편을 쳐들어가니 삼대가 아무리 왼손으로 칼을 잘 쓴들 우편으로 범하니 기운이 줄어드는 지라. 삼십여 합에 승부를 결치 못하였으나 강장의 형세가 급한지라, 원수가 진전에서 두 장수의 싸움을 보고 칼을 들고 내달아 삼대의 우편을 쳐들어가니 삼대가 아무리 재주가 용한들 어찌 창을 한 손으로 쓰리오. 이십여 합에 승부를 가리지 못하더니 문득 강장의 창이 번뜻대며 삼대의 탄 말을 찢러 말이 거꾸러지니 삼대도 땅에 떨어지는지라. 원수가 달려들려 하니 삼대가 공중으로 솟아 달려들어 싸울새, 원수가 강백과 더불어 급히 치니 삼대가 견디지 못하여 달아나더라. 원수가 말을 달려 급히 따르며 칼을 들어 삼대의 창 든 손을 치니 삼대가 놀라 창을 버리고 공중으로 날아 달리거늘 원수가 솟아올라 삼대의 목을 치더라. 일진광풍이 일어나며 문득 진전에 푸른 안개 일어나고 두 줄 무지개가 공중에 뻗치거늘, 원수가 괴이하게 여겨 살펴보니 삼대의 왼팔 밑에 날개가 돋쳐 있더라.

삼대의 죽음을 보고 ㉠ 적진이 대경 황망하여 일시에 도망하거늘 원수와 강장이 본진에 돌아와 승전고를 울리니 여러 장수와 군졸이 치하하며 모두 즐기더라.

- 작자 미상, 『조옹전』 -

* 경적: 적을 알뜰.

34.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사건의 압축적 제시와 대화 장면의 제시를 통해 사건 전개에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
- ② [B]는 장면 묘사를 통해 인물의 상상과 현실 사이의 대립을 부각하고 있다.
- ③ [A], [B] 모두 회상을 통해 사건의 면면을 제시하고 있다.
- ④ [A], [B] 모두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현실의 비극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는 세속적 공간을, [B]는 초월적 공간을 통해 인물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35.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강백’은 의도적으로 ‘삼대’의 감정을 자극했다.
- ② ‘조옹’은 신의보다는 자식으로서의 도리에 이끌렸다.
- ③ ‘삼대’는 자신의 약점을 위장하여 ‘조옹’의 방심을 유도했다.
- ④ ‘부인’은 ‘조옹’이 고백하기 전에 그의 불효한 죄를 알고 있었다.
- ⑤ ‘월경 대사’는 ‘조옹’의 정해진 운명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옹전』에는 흥미를 이끌어내는 요소로 ‘결연’ 모티프와 ‘군담’ 모티프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결연’ 모티프는 개인적 욕망과 사회적 규범의 긴장 관계 속에서 남녀 간의 인연이 맺어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 단위인데, 천명에 따르거나 주체적 의지에 따라 결연하는 주인공, 결연에 반대하거나 동의하는 부모, 결연을 합리화하는 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군담’ 모티프는 개인의 영웅적 능력이 국가적 위기에서 발현되는 과정을 묘사한 이야기 단위인데, 조력자의 개입, 강력한 적수의 등장, 역동적 전투 장면 등으로 구성된다.

- ① ‘조옹’은 ‘부인’의 뜻을 먼저 묻지 않고 결연을 주체적으로 결정한 것이겠군.
- ② ‘부인’은 ‘조옹’의 개인적 욕망보다는 사회적 규범을 중시하여 아들의 결연을 합리화하고 있군.
- ③ ‘월경 대사’는 ‘조옹’의 수련을 돕는 것으로 보아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군.
- ④ ‘조옹’이 지략과 용맹을 발휘하여 싸우는 역동적 장면은 서사적 흥미를 더하는 장치이겠군.
- ⑤ ‘삼대’에게 날개가 돋쳐 있는 모습을 서술하여 ‘삼대’가 ‘조옹’의 강력한 적수였음을 보여 주고 있군.

37. ㉠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 ① 혼비백산(魂飛魄散) ② 경거망동(輕舉妄動)
- ③ 동분서주(東奔西走) ④ 분기탱천(憤氣撐天)
- ⑤ 적반하장(賊反荷杖)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차디찬 아침인데
 묘향산행 승합자동차는 텅 하니 비어서
 ㉠ 나이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오른다
 옛말속같이 진진초록 새 저고리를 입고
 ㉡ 손잔등이 밧고랑처럼 몹시도 터졌다
 계집아이는 자성(慈城)으로 간다고 하는데
 ㉢ 자성은 예서 삼백오십 리 묘향산 백오십 리
 묘향산 어디에서 삼촌이 산다고 한다
 ㉣ 새하얗게 얼은 자동차 유리창 밖에
 내지인 주재소장 같은 어른과 어린아이 둘이 내임*을 낸다
 계집아이는 운다 느끼며 운다
 ㉤ 텅 비인 차 안 한구석에서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씻는다
 계집아이는 몇 해고 내지인 주재소장 집에서
 밥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보개를 하면서
 이렇게 추운 아침에도 손이 뽕뽕 얼어서
 찬물에 걸레를 쳤을 것이다

- 백석, 「팔원(八院)-서행시초(西行詩抄) 3」 -

* 내임: 냄. '배웅'의 평안 방언.

(나) 국철 타고 앉아 가다가
 문득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려 살피니
 아시안 젊은 남녀가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늦은 봄날 더운 공휴일 오후
 나는 잔무 하러 사무실에 나가는 길이었다
 저이들이 무엇 하려고
 국철을 탔는지 궁금해서 쳐다보면
 서로 마주 보며 떠들다가 웃다가 킷속말할 뿐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모자 장사가 모자를 팔러 오자
 천 원 주고 사서 번갈아 머리에 써 보고
 만년필 장사가 만년필을 팔러 오자
 천 원 주고 사서 번갈아 손바닥에 써 보는 저이들
 문득 나는 천박한 호기심이 발동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황급하게 차창 밖으로 고개 돌렸다
 국철은 강가를 달리고 너울거리는 수면 위에는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물결을 타고 있었다
 나는 아시안 젊은 남녀와 천연하게
 동승하지 못하고 있어 낯짝 부끄러웠다
 국철은 회사와 공장이 많은 노선을 남겨 두고 있었다
 저이들도 일자리로 돌아가는 중이지 않을까

- 하중오, 「동승」 -

38. (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일상적 삶에 대한 반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계절적 배경을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 ⑤ 부정적 현실을 포용하려는 여유로운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3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어린', '하나'는 화자가 계집아이에게 주목하게 된 계기를 나타낸다.
- ② ㉡에서 '밧고랑'에 비유된 '손잔등'은 계집아이의 고달픈 삶을 드러낸다.
- ③ ㉢에서 '삼백오십 리', '백오십 리'는 계집아이의 여정이 고단할 것임을 나타낸다.
- ④ ㉣에서 '유리창 밖'은 안과 대비되어 육친과 이별하는 계집아이의 슬픔을 강조한다.
- ⑤ ㉤에서 '눈을 씻는다'는 계집아이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드러낸다.

40. <보기>를 참고할 때,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현대 사회의 인간관계에서 시선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시선은 관심을 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치 평가의 의미를 띠는 경우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선을 보내지 않는 것은 긍정적인 무관심으로 이해된다.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 가치 평가적 시선을 거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 ① '국철'은 서로 다른 성격의 시선들이 드러나는 공간이겠군.
- ② '나'의 쳐다보는 행위는 '아시안 젊은 남녀'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겠군.
- ③ '저이들'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무관심을 가지고 있겠군.
- ④ '나'가 황급히 '고개 돌렸'던 것은 가치 평가적 시선을 거두는 행위겠군.
- ⑤ '동승'은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자는 뜻이 담긴 것이겠군.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천대를 받아도 얻어맞는 것보다는 낫다! 그도 그럴 것이다. 미친 채하고 떡목판에 엮드러진다는 셈으로 미친 채하고 어리광 비슷한 수작을 하거나, 스라소니 행세를 하거나 하여, 어쨌든 저편의 호감을 사고 저편을 웃기기만 하면 목전에 닥쳐오는 핍박은 면할 것이다. 속으로는 요놈 하면서라도 얼굴에만 웃는 빛을 띠면 당장의 급한 욕은 면할 것이다. 공포(恐怖), 경계(警戒), 미봉(彌縫), 가식(假飾), 굴복(屈服), 도회(韜晦)*, 비굴(卑屈)…… 이러한 모든 것에 숨어 사는 것이 조선 사람의 가장 유리한 생활 방도요, 현명한 처세술이다. 실상 생각하면 우리의 이러한 생활 철학은 오늘에 터득한 것이 아니요, 오랫동안 봉건적 성장과 관료전제 밑에서 더께가 앉고 굳어 빠진 껍질이지마는, 그 껍질 속으로 점점 더 파고들어 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 생활이다.

“어떻든지 그저 내지인과 동등한 대우만 해 주면 나중에 어찌 되든지 살아갈 수 있겠죠.”

청년은 무엇에 쫓겨 가는 사람처럼 차 안을 휘휘 둘러다 보고 나서 목소리를 한층 낮추어서 다시 말을 잇는다.

“가령 공동묘지만 하더라도 내지에도 그런 법률이 있다 하면 싫든 좋든 우리도 따라가는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도 또 우리의 유품이 있지 않습니까? 대관절 내지에도 그런 법이 있나요?”

의외에 이 장돌뱅이도 공동묘지 이야기를 꺼낸다. 나는 아까 형님한테 한참 설법을 듣고 오는 길에 또 이러한 질문을 받고 보니, 언제 규정이 된 것이요 어떻게 시행하라는 것인지는 나로서는 알고 싶지도 않고, 그까짓 것은 아무렇거나 상관없는 일이지마는, 아마 요사이 경향에서 모여 앉으면 께들 문젯거리, 화젯거리가 되는 모양이다. 나는 한번 꺾꺾 웃어 주고 싶었으나 그리할 수는 없었다.

“일본에도 공동묘지가 있다우.”

나 역시 누가 듣지나 않는가 하고 아까부터 수상쩍게 보이던 저편 뒤로 킁킁한 구석에 금테를 한 동 두른 모자를 쓴 채 외투를 뒤집어쓰고 누웠는 일본 사람과, 김천서 나하고 같이 오른 양복쟁이 편을 둘러다 보았다. 나의 말이 조금이라도 총독정치를 비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서 무슨 오해가 생길지 그것이 나에게도 염려되는 것이었다.

“정말 내지에도 공동묘지가 있어요? 하지만 행세하는 사람야 좀 다르겠죠?”

“그야 좀 다르겠지만, 어떻게 일본에서는 주로 화장을 지내기 때문에 타고 남은…… 아마 목구멍 뼈라든가를 갖다가 묻고 목패든지 비석을 세운다우. 그러지 않아도 살아 있는 사람도 터전이 좁아서 땅 조각이 금 조각 같은데, 죽는 사람 마다 넓은 터전을 차지하다가 이 세상에는 무덤만 남고 말지 않겠소, 허허허.”

나는 이러한 소리를 하면서도 묘지를 간략하게 하여 지면을 축소하고 남은 땅은 누구의 손으로 들어가고 마누 하는 생각을 하여 보았다.

“그리구서니 자기의 부모나 처자를 죽었다구 금세루 살라야 버릴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대대로 내려오는 제 집 산소까지를.”

이 사람은 나의 말이 옳다는 모양으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래도 반대를 한다.

“화장을 지낸다기루 상관이 뭐겠소. 예전에 애급이라는 나라에서는 왕후장상의 시체는 방부제를 쓰고 나무 관에 넣은 시체를 다시 석관까지에 튼튼히 넣어서 피라미드라는 큰 굴 속에 묻어 두었지만, 지금 와서는 미이라밖에 되지 않고 만 것을 보면 죽은 송장에게 능라주의(綾羅紬衣)*를 입히고 백 평, 천 평 되는 땅에다가 아무리 굳게 파묻기로 그것이 무엇이든 말이오. 동상을 세우면 무얼 하고 송덕비를 세우면 무엇에 쓴다는 말이오.”

내 앞에 앉았는 장꾼은 무슨 소리인지 귀에 자세히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다.

“네에, 그런 것이 있어요?”

하고 멀거니 앉았다.

“하여간 부모를 생사장제(生事葬祭)에 예(禮)로써 받들어야 할 거야 더 말할 것 없지마는, 예로 하라는 것은 결국에 공경하는 마음이나 정성을 말하는 것 아니겠소? 그러니 공동묘지 법이란 난 아직 내용도 모르지마는, 그것은 별문제로 치고라도, 그 근본정신은 생각지 않고 부모나 선조의 산소 치레를 해서 외화(外華)나 자랑하고 음덕(蔭德)이나 바란다는 것도 우스운 수작이란 것을 알아야 할 거 아니겠소. 지금 우리는 공동묘지 때문에 못살게 되었소? 염통 밑에 쉬스는 줄은 모른다구, 깡살릴* 것 다 깡살리고 뱃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도 죽은 뒤에 파묻힐 곳부터 염려를 하고 앉았을 때인지? 너무도 얼빠진 늙둥이 수작이 아니요? 허허허.”

나는 형님에게 하고 싶던 말을 장돌뱅이로 돌아다니는 이 자를 붙들고 한참 푸념을 하였다.

- 염상섭, 「만세전」 -

* 도회: 재능이나 학식 따위를 숨겨 감춤.

* 능라주의: 비단옷과 명주옷.

* 깡살리다: 재물이나 기회 따위를 호지부지 다 없애다.

4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징적 배경을 통해 갈등이 해소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 ② 냉소적 어조를 통해 세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인물들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 ④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하여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⑤ 인물들의 체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여 주제를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42. ‘공동묘지 법’과 관련한 인물들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공동묘지 법’ 시행에 따른 ‘화장’의 제도화를 우려하고 있다.
- ② ‘나’는 ‘공동묘지 법’의 시행 전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③ ‘나’는 ‘공동묘지 법’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 ④ ‘장돌뱅이’는 ‘공동묘지 법’의 목적이 묘지를 없애 집터를 넓히는 데 있다고 믿고 있다.
- ⑤ ‘장돌뱅이’는 ‘공동묘지 법’이 ‘애급’의 관습을 따른 것이라는 사실에 흥미로워 하고 있다.

4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920년대 문학의 전개 과정에서, 염상섭은 개인의 발견과 현실 인식이라는 소설의 근대적인 특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인칭 시점을 적용한 소설을 통해 개인의 내면을 드러내는 방식을 모색하여, 개성의 표현으로서의 문학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하였다. 나아가 그는 생활 현실에 근거한 문학으로 관심을 확장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문예는 생활의 기록이요, 흔적이요, 주장이다. 생활에 대한 염상섭의 새로운 인식은 생활의 표현을 통해 삶의 문제를 총체적인 시각에서 조망하려는 근대 문학의 정신에 접근하고 있다.

- ① 시속의 ‘처세술’에 대해 성찰하여 평가한 점을 통해, 생활의 문제에 대한 작가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생활 철학’을 터득하려는 개개인의 의지를 옹호한 점을 통해, 개인의 발견에 관한 작가의 의식을 이해할 수 있겠군.
- ③ ‘지금의 우리 생활’을 ‘봉건적’ 의식과 문화에 견주어 문제 삼은 점을 통해, 삶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조망하려는 작가의 시각을 엿볼 수 있겠군.
- ④ 일상적 관심사로 오르내리는 ‘화젯거리’를 이야기한 점을 통해, 생활의 흔적을 기록하려는 작가의 노력을 살필 수 있겠군.
- 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나’가 서술하도록 설정한 점을 통해, 개성을 표현하는 문학의 방식을 모색하는 작가의 관심을 찾아볼 수 있겠군.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랑을 노래하는 청춘의 봄은 화려하고 찬란한 봄이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느끼는 봄은 인생의 끝없는 봄이다. 누가 봄을 젊은이의 것이요, 늙은이의 것이 아니라 하던가. 젊은이의 봄은 기쁨으로 차 있는 활엽의 봄이지만 **늙은이의 봄**은 기쁨과 슬픔을 아울러 지닌 겹겹의 봄이다. 과거란 귀중한 재산, 과거라는 재산이 호수에 가득 찬 물결같이 고이고 고여서 오늘을 이루고 있는 것, 물 위에 호수가 따로 없듯이 과거를 떠나서 오늘이 따로 없는 것. 그러므로 물이 많을수록 호수가 아름답고 과거가 길수록 오늘이 큰 것이다.

늙어서 봄을 맞으며 봄을 앞으로 많이 못 볼까 슬퍼할 필요는 없다. 그동안 많이 가져본 **봄이 또 하나** 느끼는 것을 **대견하게** 생각할 일이다. 산에 오르거나 먼 길을 걸을 때, 십 리고 이십 리고 가서 뒤를 돌아다보고는 내가 저기를 걸어왔구나 하며, 흐뭇하고 **자랑스러운 때**도 있다. 그리고 돌아다보는 경치가 걸어들 때보다 놀랍게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때도 있다. 다만 지나온 추억을 더듬어 한 개의 진주를 발견하지 못하고 거친 모래알만 쥐어질 때, 그것이 슬프다. 보잘것없는 내 과거가 항상 오늘을 슬프게 할 뿐이다.

뜰 앞에 한 그루 밀감나무가 서 있다. **동쪽 가지** 끝에 파릇 파릇 싹이 움 돌기 시작한다. 굵은 가지에서도 푸른 생기가 넘쳐 흐른다. 미구에 잎이 피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것이다. 집안사람들의 기대가 사뭇 크다. 그러나 서쪽 가지에서는 소식이 없다. 나무의 절반은 죽은 가지다. 죽은 가지에 봄이 올 리 없다. 지난겨울에 잎이 다 떨어지고 검은 등걸만 남았을 때, 혹 죽지나 아니했나 염려도 했고, 봄이 되면 살아나겠지 믿기도 했었다. 그러나 같은 나무 한 등걸에서 한 가지는 살고 한 가지는 죽었 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눈보라 추운 속에서도 한 가지는 생명을 기르며 겨울을 살아왔고, 한 가지는 그 속에서 자기를 살리지 못했던 것이다. 저 동쪽 가지의 씩씩하고 발랄한 **생의 의지**. 지난겨울 석 달 동안, 마음속으로의 안타까운 저항. 그리고 남모르는 분투와 인내! 이에 대한 무한한 경의와 찬사를 보내고 싶다. 봄이 가면 봄이 없다고 슬퍼함은 일 년을 사는 곤충의 슬픔이다. 교목은 봄이 열 번 가면 열 개의 봄을, 가을이 백 번 가면 백 개의 가을을 지낸다.

생활에 따라서는 인류 역사 **억만 년의 봄이 다 내 몸**에 간직된 봄이요, **생각**에 따라서는 잊지 못할 뚜렷한 봄이란 또 몇 날이 못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래 세상에 머물러 **봄을 여러 번 보는 것**이 귀한 게 아니라, 봄을 봄답게 느끼고 지나온 모든 봄을 회상하며 과거를 잃지 않고 되새기는 것도 우리의 생활을 풍부하게 해 줄지언정 섭섭할 것은 없다.

- 윤오영, 「봄」 -

4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상에서 보고 들은 바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②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③ 자연을 상대로 대화하면서 자신의 관점을 합리화하고 있다.
- ④ 타인의 견해를 인용하여 글쓴이의 주장을 일반화하고 있다.
- ⑤ 소재에 대한 일상적인 통념에서 출발하여 삶의 의미를 찾아 내고 있다.

45.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늙은이의 봄’을 물의 속성에 비유한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흐르는 세월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어.
- ② ‘봄이 또 하나 느끼는 것을 대견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과거를 부정하고 미래를 지향하고 있어.
- ③ 과거를 ‘자랑스러운 때’로 추억하는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화려한 청춘의 봄으로 회귀하려 하고 있어.
- ④ 겨울을 이겨 낸 ‘동쪽 가지’를 주목한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생의 의지’에 따라 저마다 다른 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보고 있어.
- ⑤ ‘생활’에 따라 ‘억만 년의 봄이 다 내 몸’에 간직된다고 한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봄을 여러 번 보는 것’에서 봄의 진정한 가치를 찾고 있어.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